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경찰청

보도	2024.12.11.(수) 조간	배포	2024.12.10.(화)
----	-------------------	----	----------------

담당부서	금융사기대응단	책임자	팀 장	정재승	(02-3145-8130)
		담당자	수석조사역	김병진	(02-3145-8522)
	금융사기대응총괄팀	책임자	팀 장	이환권	(02-3145-8521)
		담당자	선임조사역	윤형석	(02-3145-8534)
	금융사기대응2팀	책임자	총 경	안찬수	(02-3150-0141)
		담당자	경 정	백의형	(02-3150-2782)
경찰청 형사국 마약조직범죄수사과	책임자				
	담당자				

고령층을 대상으로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거액 주택담보대출을 유도하는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 소비자경보 2024 - 35호	
등급	주의 경고 위험
대상	금융소비자 일반

소비자경보 내용

- ◆ 최근 사기범들이 **고령층을 대상**으로 카드 오발급 등을 빙자하여 접근, 범죄 연루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주택 담보대출을 받도록 유인**한 후 해당 대출금을 편취함으로써
 - 금전적 피해는 물론 **담보로 제공된 노후 자산까지 잃게 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
- ⇒ 검찰·금감원 등 **국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에게 대출을 받도록 권유하지 않음을 꼭 기억**하세요!

< 대출을 종용하여 편취하는 주요 수법 >

I. 피해자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대출을 지급정지했으나, 혹시 모르니 대출 신청을 해서 조치가 확실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대출이 실행 되었다면 이는 불법자금으로 국고에 환수되어야 한다며 대출금을 요구

II. 피해자 계좌가 부정사기 대출에 연루되었으니, 대출중개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아 정상 대출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며 대출금을 요구

1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 최근 정교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다단계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면서 고령층 등의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
 - 특히, 중요 노후 자산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한 후 편취함으로써 노후 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를 발령

2 시나리오 단계별 사기 수법

- (1단계: 기망)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은 카드 등을 미끼로 개인정보 유출, 명의도용 등을 언급하면서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기망

※ 기망 수법 예시

- ◆ 사기범은 카드 배송원, 카드사 상담원, 금감원 직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기망
 - (카드 배송원) “카드 발급 신청하신 적 없으시다고요? 안내해 드리는 카드사 번호로 연락하세요. 070-XXXX-XXXX”
 - (카드사 상담원) “고객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명의가 도용된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온라인으로 피해구제를 접수해야 하니 보내드리는 문자메시지 링크를 클릭하셔서 앱*을 설치하세요”
 - ※ 악성 앱이 설치되면 해당 휴대폰을 이용한 통화는 사기범에게 연결되므로 이후에는 반드시 유선 전화 혹은 지인의 휴대폰으로 통화할 필요
 - (금감원 직원) “선생님 ○○은행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현재 □□지검 ◇◇◇ 검사님이 수사 중이시네요. ◇◇◇ 검사님에게 전화해보세요”

- (2단계: 공갈) 범죄 연루, 구속 수사 및 기밀 유지 등을 언급하면서 피해자의 심리적 압박감 및 사회적 고립감을 이용하여 공갈

※ 공갈 수법 예시

- 사기범은 구속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피해자를 겁박한 뒤, 수사 기밀을 강조하면서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킨 다음 구속을 면하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며 공갈
 - (경찰) “범죄 피해금액은 수억 원이고, 피해자는 수십 명이에요. 사안이 심각합니다. 경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아야하니 여벌 옷 챙기세요.”
 - (경찰) “수사는 절대 기밀 사항이고 시키는 대로 협조하면 약식으로 수사할 테니 자금조사 절차에 절대적으로 협력하세요.”

- (3단계 : 편취) 자금조사, 자산 보호 절차 등을 명목으로 자산을 현금화 하여 특정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대출도 중용

※ 편취 수법 예시

- 사기범은 불법자금 조사에 필요하다거나, 개인정보 유출로 자산이 편취될 위험이 있으니 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피해금을 편취
 - (금감원 직원) “선생님이 범죄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조사해야 하고 그러려면 선생님 자금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 (금감원 직원) “부정사기 대출 의혹을 벗기 위해서는 대출중개업체를 이용하여 정상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금감원 직원) “개인정보 유출로 범죄조직이 선생님 재산을 다 빼앗아 갈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알려드리는 국가안전계좌로 모든 재산을 자금화하여 이체하셔야 합니다”

3 시나리오 단계별 소비자 행동 요령

※ 통화 시 아래 키워드가 들리면 무조건 의심하시고, 대응 요령을 숙지하여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평소에 꼭 기억하세요!!!

- (1단계 : 기망) 키워드 개인정보 유출, 명의도용

- (대응 요령) 출처가 불분명한 URL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본인 명의 카드발급 여부 등 확인을 위한 카드사 연락처는 카드사 혹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대표번호로 연락하세요!

* crefia.or.kr → 회원사 정보 → 회원사 안내 → 신용카드사

- (2단계 : 공갈) 키워드 범죄 연루, 구속 수사, 기밀 유지

- (대응 요령) 통화한 직원의 이름, 소속, 직위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시고 전화를 끊으신 후 유선 전화 혹은 지인의 휴대폰*으로 소속 기관 홈페이지의 대표번호로 전화하시어 해당 직원의 연결을 요청하세요!

* 피해자 본인의 핸드폰은 악성 앱 등 설치로 다시 사기범으로 연결될 우려

- (3단계 : 편취) 키워드 자금조사, 자산 보호

- (대응 요령) 국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금조사, 자산 보호 등을 명목으로 국민에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지 않으니, 이러한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마세요!

※ 악성 앱 설치 등으로 개인정보가 탈취되어 본인도 모르는 대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을 통해 원하지 않는 대출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 ◆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대출로 금전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출시('24.8.23.)
 - 동 서비스 출시 후 약 1개월 간의 이용 실적을 보면 대출 수요는 낮으면서 보이스피싱에는 취약한 60대 이상 고령층의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
 - 금융소비자는 은행, 저축은행,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전문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 가능*
- * 신용정보 법령상 신용정보원에 정보를 집중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는 제외